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오후3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내 평생에 가는 길(470)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469)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27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마가복음 5:25-34	인 도 자
설 교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363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남영아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양육사역	
찬양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10월 22일 제12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메우는 다리(Bridge)와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 같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죄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유일한 원인이었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열 두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당대에 있어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던 병입니다. 여기 이 여인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은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런 혈루증을 앓게 되면 율법은 이런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죄인으로 정죄 하였습니다. 그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부정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포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누구와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격리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관계의 상실이 어쩌면 그가 앓고 있는 병보다도 더 심각한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이 컸던 만큼 소망도 컸습니다. 그녀는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였는데 정말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치료받았으니 다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을까요?

기적적인 사건만이 결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치료받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저는 굳이 예수님만이 그 해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런 것이었다면 열 두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실보다 사실은 병이 난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실은 믿음에 대한 더욱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야이로에게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여인을 찾으셨습니까? 여인의 문제는 그저 병이 낫는 것으로만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치유된다고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 버림바 되버린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되었던 여인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 될 수 있을까요. 병이 낫다고 이제껏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 여인을 아내로 딸로 이웃으로 맞이할까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온전한 한 인간의 치유나 회복을 보장하는 것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되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곤 여인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무도 이 여인을 아내라고 어머니라고 내 친구라고 내 딸이라고 하지 않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부르시더니 딸아 하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믿음은 치유를 넘어서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갈라놓은 하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유사믿음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하루방 코하고 배만져서 애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돌하루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기 나면 그만이예요. 여기에 기독교 믿음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유사믿음 사이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선포하신 이 믿음은 바로 육신의 문제를 초월하는 하늘의 삶을 사는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이 말씀은 병에서 치료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육신의 질병이 온다 할 지라도 그 병에 눌리는 삶 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병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유함을 얻는 삶 이런 삶 믿음을 통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를 위해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지역사회와 한인이민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00	
감사헌금:	$92.00	
주일헌금:	$25.00	
특별헌금:	$0.00	**합 계: $120.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 믿음과 열정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